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5.8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93.95원 (-11.35원)

KOSPI
2,573.80 (+14.01, +0.55%)

KOSDAQ
722.81(+0.95, +0.13%)

국고채 10년 금리
2.603(+0.01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덴탈	덴탈 르네상스: 기술, 인구, 소비 트렌드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한유건, 최재호, 권태우]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ESG	2024 CDP Korea 연례보고서 발간 및 시사점 [김상만]
FX Spotlight	달러-원 환율 1,300원대 진입. 높은 변동성 속 레벨 재탐색 구간 [전규연]

기업분석

카카오뱅크	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수신 기반 [최정욱]
KCC	건자재 감익 선반영, 이제는 실리콘 개선에 주목 [윤재성]
에스엠	2분기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 [이기훈]

산업분석

자동차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5년 4월) [송선재]

Weekly

건설	금리 인하,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기대감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데이터독	긍정적인 시그널에 주목 [김재임]
에어버스	관세 불확실성과 경쟁사 부각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KT,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이마트, 현대코퍼레이션, 브이티, 휴온스글로벌, CJ프레시웨이, 디오

하나증권

덴탈 산업

덴탈 르네상스: 기술, 인구, 소비 트렌드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글로벌 경기 하강에 부진했던 2024년

덴탈 산업은 보건의료 분야 중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지만, 2024년에는 ① 고금리 및 경제 불확실성, ② 중국 경기 부진 및 시장 성장 둔화, ③ 재고 조정 및 공급망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인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덴탈 업체는 일시적인 조정을 겪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덴탈 산업은 고령화, 예방 중심 치료 확산,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성장 기조는 유효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수요 증가 폭 확대 예상

덴탈 산업에 있어 금리 변화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022년과 2024년 금리 상승 시기(미 국채 10년물 기준, '22년 Avg. 1.5% → 3.0%, '24년 Avg. 4.2%)에 덴탈 업체의 실적과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다. 2025년 들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수요 회복과 기술 투자가 가속화 되며 덴탈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덴탈 업체도 빅배쓰(Big Bath)를 진행함에 따라 대규모 일회성 비용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지연되었던 장비 발주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됨에 따라 바텀피싱 전략으로 접근을 제시한다.

가속화 되는 인구 고령화 → 임플란트 침투율 확대로 연결

덴탈 산업의 구조적 성장 동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이다.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약 10억 명에서 2050년 21억 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평균 결손 치아 개수는 9개로 치아 손실 및 치주질환 등 복합적인 구강 문제 증가로 인해 향후 치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임플란트 시장 침투율은 1.5%에 불과하며,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덴탈 인프라 확충, 의사 수 증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성장 시장으로 판단된다.

본격 성장을 앞둔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

최근 덴탈 산업은 인공지능(AI),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초기 상용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비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흥국에서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궁극적으로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Top Pick 및 관심종목: 디오, 레이, 덴티움, 덴티스, 메타바이오메드

2025년 5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2024 CDP Korea 연례보고서 발간 및 시사점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The Show Must Go On"

지난 4월 3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CDP한국위원회(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가 주관하는 2024 CDP Korea Report 발간 &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공개 프로젝트)는 세계 유일의 독립적인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으로서 전세계 7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300개 이상의 고객사가 CDP를 통해 기업과 공급사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수자원(Water Security), 산림(Forest),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플라스틱(Plastic)과 관련한 환경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세계 24,800개 이상의 기업(국내기업: 865개)이 CDP를 통해 주요 환경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2017년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공시 의무화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TCFD 권고안에는 CDP의 주요 프레임워크와 질의서 내용이 반영된 바 있으며 이는 CDP가 기후공시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당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트럼프 2.0시대를 맞이하여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기후변화진영의 위기감과 동시에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기조연설과 관련 참석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의 골자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2.0시대를 맞이하여 기후변화운동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인가? 둘째,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기후공시일정과 관련된 현안 및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공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 내지 현안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첫째, 트럼프 2.0시대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동시에 짙어지는 경제위기감에 기후 등 환경을 필두로 한 ESG대응이 주춤하는 모양새인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 교수는 과거에도 정권교체 등에 따라 환경정책의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환경운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성과를 감안해볼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 상당부분이(환경관련정책을 포함하여) 법률 입안 내기 개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조연설과 별개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미국과 EU는 환경 및 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통상과 연계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할 경우 Anti-ESG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후 등 ESG이슈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는 제조업 기반 수출의 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의 경우 더욱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기후공시와 관련해서는 EU에서 일찌감치 관련규정이 완비되었고 미국 또한 '24년 3월 SEC의 기후공시규정이 확정된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4년 4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2025~30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자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전반적인 환경운동을 흔들어 놓으면서 기후공시의 일정마저도 늦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경영진 관점에서는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관세통상위험의 확대 등과 같은 현안에 밀려 공시시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또한 귀담아들어야 할 포인트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정보 공시와 관련된 보다 실무적인 애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된 점 또한 의미가 컸다. 환경공시와 관련된 기후데이타를 수집, 집계해야 하는 일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업과 거리가 있는 해당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전문기관(주로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수반된다. 그리고 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서 미화로 약 3만불의 정보구독료(일회성이 아니라 매년!)를 지불해야 한다(이것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야…).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한 발표자는 이 같은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관심을 끌었다. 실천가능한 예시로 기상청이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기후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정보포털의 사용자친화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활용효율이 크지 않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CDP한국위원회는 최근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 협약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대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특히, 공시 항목 중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폭염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뜻한다.

FX Spotlight

Economy | 2025.05.07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김형균 hyungkyunkim@hanafn.com

달러-원 환율 1,300원대 진입. 높은 변동성 속 레벨 재탐색 구간

대만달러 강세와 연동되며 1,300원대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

- 달러-원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에 진입. 대만달러의 급격한 강세 시현으로 원화의 동반 강세 흐름 전개
- 대만달러는 지난 5/2, 5/5 이틀 동안 10% 가량 절상됐으며, 이후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되돌림 장세 나타나며 나흘 누적으로 (5/2~5/7) 6% 절상(5/1 32.1 TWD → 5/7 30.2 TWD)
- 통상적으로 대만달러는 외환당국이 타이트하게 관리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2024년부터 꾸준히 대만달러가 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환헤지 물량이 크지 않았음.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대만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한 달러 매도, 대만달러 매수세가 나타남. 특히 대만 생보사의 해외자산 보유 규모 감안 시 자산(달러)-부채(대만달러)의 미스매칭으로 환헤지 물량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판단
- 대만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아 역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높아지자 대만달러 대신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도 5월 연휴 중 NDF 환율이 1,373원(-29.1원)까지 하락했으며, 5/7 정규장에서 달러-원 환율 개장가도 1,380원을 기록.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및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5/7 달러-원 환율 종가(3:30pm 기준)는 1,398원을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7.3원 하락에 그쳤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급격히 아래로 쏠렸던 만큼 환율 레벨을 재탐색해야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아시아 통화의 절상 압력 + 미 달러 약세 = 원화의 점진적 강세 흐름 유효

- 물론 달러-대만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원화 강세는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을 높게 봐야할 것. 이로 인한 원화의 급격한 절상은 지속 가능성 낮음
-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통화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감안 시 아시아 통화의 강세 방향성은 유효. 한-미 무역협상도 의제가 1) 관세 · 비관세 조치, 2) 경제 · 안보, 3) 투자 협력, 4) 통화 · 환율 정책의 네 가지로 추려졌고, 기재부가 환율 관련 실무 접촉을 진행 중에 있어 달러-원 환율도 하방 압력이 우세할 듯
- 미 달러는 안전통화로서의 신뢰도 약화, 관세 발 미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연초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 하반기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가 본격화된다면 미 연준 금리 인하의 타당성이 높아지며 미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협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면, 달러-원 환율의 점진적 하락 흐름은 유효. 원화는 미국의 무역협상 과정과 미국 경제의 둔화 흐름을 확인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절상 기대
- 관건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폭.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음. 취약한 국내 경기 펀더멘털(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실물경제 흐름, 관세 발 미국 물가 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필요
- 하나증권은 분기 평균 달러-원 환율이 2Q 1,400원 – 3Q 1,380원 – 4Q 1,36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 1,398원)

2025년 5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카카오뱅크 (323410)

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수신 기반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000원
현재주가(5.7)	2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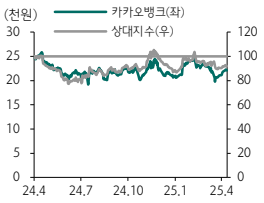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573.80
52주 최고/최저(원)	25,850/19,180
시가총액(십억원)	11,113.5
시가총액비중(%)	0.53
발행주식수(천주)	476,976.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29.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1
외국인지분율(%)	17.02
주요주주 지분율(%)	
카카오	27.16
한국투자증권	27.1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680	766
순이익(십억원)	497	563
EPS(원)	1,042	1,181
BPS(원)	14,429	15,35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총영업이익	1,162	1,371	1,516	1,646
세전이익	469	589	682	750
지배순이익	355	440	511	562
EPS	744	923	1,072	1,179
(증감율)	34.7	24.0	16.2	10.0
수정BPS	12,829	13,712	14,425	15,134
DPS	150	360	470	560
PER	38.3	22.8	21.7	19.8
PBR	2.2	1.5	1.6	1.5
ROE	6.0	7.0	7.6	8.0
ROA	0.8	0.8	0.8	0.8
배당수익률	0.5	1.7	2.0	2.4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예상을 상회한 실적. 이는 수신 확대로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덕분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23.6% 증가한 1,374억원으로 우리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는 예상보다 총수신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더 커졌고, 투자금융자산 수익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1) 1분기 대출성장률은 예상대로 2.5% 성장하고, NIM은 2.09%로 6bp 하락해 순이자이익이 QoQ 1% 감소했지만 2) 총수신이 QoQ 9.9%나 급증하면서 늘어난 수신을 대출 외에 MMF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해 기타비이자이익이 크게 확대했다. 3) 광고수익과 체크카드수수료는 증가했지만 대출비교수수료와 증권연계계좌수수료는 QoQ 감소해 Fee&플랫폼 수익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4) 매체광고비 감소와 4분기 계절성 증가 요인 소멸로 인해 판관비는 1,250억원으로 QoQ 12.3% 감소했으며, 5) 대손비용이 610억원으로 다시 낮아진 점도 양호한 실적의 주요 배경이다. 올해 카카오뱅크의 연간 추정 순익은 약 5,110억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익이 예상되고, 자본증가율보다 이익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ROE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 추세 지속시 중장기 ROA 하락 가능성 있지만 양호한 건전성이 이를 상쇄 가능

1분기 총수신이 9.9% 증가했고, 총수신 중 저원가성예금과 모임통장 비중이 각각 60.8%와 15.9%로 확대되는 등 독보적인 수신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1분기 대출은 2.5% 증가에 그쳤지만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총자산 성장률이 8.9%에 달하고 있다. 물론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이 대출수익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ROA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1분기에는 판관비와 대손비용 또한 잘 관리되면서 ROA도 상승했다. 기존 전통은행들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1분기에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점도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아직 개인사업자 잔액 자체가 적고, 중소법인 익스포져가 없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추정한다. 1분기 대출 증가분이 대체로 주담대와 전월세였던데다 2분기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대손비용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내 ROA 하락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Multiple 도약을 위해서는 이익 성장과 차별화된 수익 구조에 대한 믿음 줘야

상반기 중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하반기 비대면 담보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의 커버리지 확대에 따른 관련 부문 성장이 기대되는데다 플랫폼수익 증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광고플랫폼 및 투자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 중이다. 현 PBR 1.6배에서 multiple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성과 이익증가율에 대한 신뢰, 그리고 Capital 부담 적고 RWA가 낮은 플랫폼비즈니스 이익기여도가 언젠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05월 0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KCC (002380)

건자재 감익 선반영. 이제는 실리콘 개선에 주목

BUY (유지)

목표주가(12M)	350,000원
현재주가(5.07)	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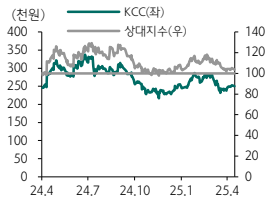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573.80
52주 최고/최저(원)	337,500/216,500
시가총액(십억원)	2,221.6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8,88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8
외국인지분율(%)	10.48
주요주주 지분율(%)	
정몽진 외 13 인	35.61
국민연금공단	12.4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6,885.3	7,017.4
영업이익(십억원)	465.9	527.6
순이익(십억원)	229.8	324.5
EPS(원)	25,364	35,734
BPS(원)	704,396	737,07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6,288.4	6,658.8	6,621.1	6,873.8
영업이익	312.5	471.1	453.7	513.3
세전이익	244.4	469.9	271.6	354.3
순이익	212.7	310.6	206.4	269.3
EPS	23,931	34,948	23,227	30,299
증감율	527.95	46.04	(33.54)	30.45
PER	9.55	6.74	10.87	8.33
PBR	0.37	0.39	0.41	0.40
EV/EBITDA	8.44	7.26	7.46	6.83
ROE	4.13	6.08	4.04	5.11
BPS	616,916	601,382	616,333	638,357
DPS	8,000	10,000	10,000	10,0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1Q25 영업이익 컨센 부합

1Q25 영업이익은 1,034억원(QoQ +5%, YoY -3%)으로 컨센(1,081억원)에 부합했다. 전분기에 발생한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 200~300억원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자재의 이익 감소가 아쉬웠다. 지배순익은 441억원이었다. 이자비용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 투자유가증권 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이 일부 발생했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266억원(QoQ +3%, OPM +3.5%)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추정한다. PA(Performance Additives)와 FS(Formulated Specialties)의 마진율이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CS&I 부문은 범용 제품 판매량 조정과 원가 정상화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료 영업이익은 546억원(QoQ +38%)로 증익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각종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제거된 영향이다. 조선용 도료의 수요와 중국/인도/인니/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호조도 지속 중이다. 건자재는 전방 수요 위축, 영업일수 감소로 물량/판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석고보드, PVC 창호의 물량 감소가 아쉬웠다. 건자재 영업이익은 225억원(QoQ -36%)으로 감익된 것으로 추정된다.

2Q25 영업이익 QoQ +10% 개선 예상

2Q25 영업이익은 1,138억원(QoQ +10%, YoY -19%)을 추정한다. 전 사업부의 개선을 전망한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285억원(QoQ +7%, OPM +3.7%)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을 예상한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DMC 약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범용제품 물량 축소, 고원가 투입효과 정상화 등 회사 자체의 수익 구조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도료 영업이익은 558억원(QoQ +2%)으로 소폭 개선을 추정한다. 건자재는 전방 수요 약세는 지속되나, 전분기 영업일수 감소 효과가 제거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영업이익 266억원(QoQ +18%)를 추정한다.

건자재 부진 선반영. 실리콘 개선과 차입금 감축 가능성 주목

BUY, TP 35만원을 유지한다. 회사는 2024년 상반기부터 전방 시장 위축에 따른 건자재의 감익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나, 이는 1Q25년에서야 본격화되었다.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주가 흐름은 이미 건자재의 감익을 선반영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실리콘의 실적 개선과 보유 자산을 활용한 차입금 감축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다. 2025년 실리콘 영업이익은 1,267억원(OPM +4.1%)으로 YoY +74%로 대폭 개선을 추정한다. 범용 제품군의 가파른 적자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 지속된 고원가 투입효과가 정상화 되었으며, 마침 메탈실리콘까지 약세를 시현하고 있다. 올해 2~3분기 중에는 보유자산 활용을 통한 차입금을 감축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실리콘 개선, 보유 자산활용을 통한 차입금 감축 가능성 대비 현 주가는 PBR 0.41배로 절대 저평가 상태라 판단한다.

2025년 05월 0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에스엠 (041510)

2분기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상향)
현재주가(05.07) 12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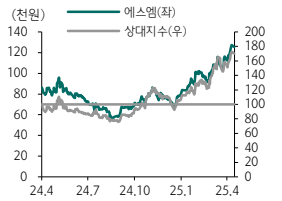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722.81
52주 최고/최저(원)	127,500/56,000
시가총액(십억원)	2,873.3
시가총액비중(%)	0.78
발행주식수(천주)	22,894.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5.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4
외국인지분율(%)	14.54
주요주주 지분율(%)	
카카오 외 11 인	41.74
하이브	9.6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143.8	1,270.9
영업이익(십억원)	142.9	175.9
순이익(십억원)	108.2	137.7
EPS(원)	4,495	5,610
BPS(원)	33,283	38,06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961.1	989.7	1,112.6	1,193.4
영업이익	113.5	87.3	152.9	184.3
세전이익	118.9	26.1	396.1	207.5
순이익	87.3	18.3	326.1	134.4
EPS	3,664	778	14,205	5,872
증감율	8.95	(78.77)	1,725.84	(58.66)
PER	25.14	97.17	8.83	21.37
PBR	2.91	2.51	0.35	0.25
EV/EBITDA	11.81	10.44	(25.71)	(39.71)
ROE	12.30	2.64	7.44	1.38
BPS	31,631	30,150	355,319	499,813
DPS	1,200	400	1,400	1,50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목표주가 상향

2분기부터 디어유 연결 효과에 더해 2차 판권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률 개선,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 매각 노력과 한한령 완화 기대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상향되는 구간에 있다. 주요 IP들이 컴백하면서 산업의 밸류에이션도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이브와 함께 동반 최선호주로 추천하며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를 제거해 2026년 기준 목표 P/E 25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150,000원(+15%)으로 상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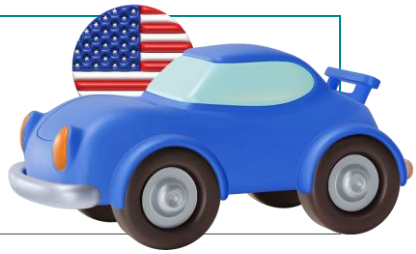
1Q OP 339억원(+276%)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314억원(+5% YoY)/326억원(+110%)으로 컨센서스(190억원)을 상회했는데, 중국향 음원 매출이 일시에 반영된 1회성 영향을 제외하면 부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 영업이익은 413억원(+105%, OPM 24.9%)으로 앨범 판매량이 약 100만장 내외였음에도 전술한 영향으로 음반/음원 매출이 678억원(+23%)으로 상당히 좋았으며 콘서트는 동방신기 일본, NCT127/에스파 월드 등 합산 약 93만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에 연동한 MD/라이선싱도 394억원(+9%)으로 긍정적이었다. 자회사에서는 C&C가 광고 부진으로 -29억원(적지), 일본 공연 규모 축소로 SMC가 -13억원(적전)을 기록하는 등 합산 -82억원(-22억원)으로 부진했다. 영업외에서는 디어유 지분 인수 영향으로 약 2,200억원 반영되었다.

2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 나타날 것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1,529억원(+75% YoY)으로 디어유 연결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된다. 2분기에는 에스파/라이즈/NCT wish가, 3분기에는 에스파/NCT 드림/하츠투하츠가 컴백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컴백이 집중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며, 작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MD/라이선싱 매출 확대 등을 통해 믹스 개선도 나타날 것이다. 하츠투하츠의 성공적인 데뷔에 더해 SMTR25(신인 남자 그룹 프로젝트)의 사전 프로모션을 통해 2026년 데뷔도 계획 중이다. 디어유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 후 온기 반영과 신규 IP의 성장이 더해지는 2026년에는 1,8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2배 증익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5년 4월)



현대차/기아 합산 +16%. 관세 전 선수요 발생 | 2025.05.08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s

현대차/기아: 4월 소매판매: +16% (YoY), DSR로는 +12% (YoY)

소매판매

- 현대차의 4월 미국 소매판매 8.8만대(+18% (YoY)), MS 6.0%(+0.4%p). 1일 많았던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 +14% (YoY)
- 기아의 4월 미국 소매판매 7.5만대(+14% (YoY)), MS 5.1%(+0.1%p). DSR 기준 +9% (YoY)
- 양사 합산 판매 16.3만대(+16% (YoY)). DSR 기준 +12% (YoY). 합산 MS 11.1%(+0.5%p (YoY))
- 4월 누적 현대차/기아/합산 소매판매는 각각 30.9만대/27.4만대/58.3만대(+13%/+12%/+12%, 점유율 5.7%/5.1%/10.8%) 기록

모델별

- **현대차**의 세단/RV 소매판매 +18%/+19% (YoY). RV 비중 75.5%
- 세단 중 엘란트라/쏘나타 +30%/+12% (YoY)
- RV 중 베뉴/코나/싼타페/투싼/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3%/-4%/+28%/+41%/+15%/-16% (YoY)
-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6,307대(+15% (YoY). 판매 비중은 7.2%(-0.2%p (YoY))
- 전기차(PHEV+EV) 판매는 5,773대(-7%, 비중 4.4%). BEV 모델인 아이오닉5 3,411대(-8%), 아이오닉6 1,106대, FCEV인 넥쏘 1대 판매
- **기아**의 세단/RV가 +14%/+7% (YoY). RV 비중 67.4%
- 세단인 포르테/K5/쏘울 -100%/+1776%/-11% (YoY)
- RV 중 텔루라이드/니로/스포티지/셀토스/쏘렌토 +21%/-22%/+18%/-29%/+11 (YoY)
- 전기차(PHEV+EV) 판매는 4,027대(-15%, 비중 3.1%). BEV 모델인 EV6/EV9는 656대(-68%)/232대, PHEV 모델인 스포티지 16,178대 판매

미국 시장: 4월 시장 소매판매 +11%, SAAR 1,727만대(+8%). GM/포드/혼다/BMW의 점유율 상승

소매판매

- 4월 미국 시장 자동차 소매판매는 146.3만대(+11% (YoY))
- 전년 동월 대비 1일 많았던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으로는 +7%. 연환산판매대수(SAAR) 1,727만대(+8%)
- 세그먼트별로는 픽업(+12%)/소형세단(-2%)/CUV(+7%)/ SUV(+23%)/럭셔리(-3%)/중형세단(-7%)/대형세단(-94%)
- 4월 누적 미국 시장 자동차 소매판매는 537.3만대(+6% (YoY))

업체별

- GM/포드/스텔란티스 26.6만대/20.2만대/10.6만대(+20%/+17%/+6% (YoY)). MS 18.2%(+1.4%p (YoY))/13.8%(+0.7%p)/7.2%(-0.4%p)
- 테슬라 4.0만대(-15%). MS 2.7%(-0.8%p)
- 일본 토요타/혼다/닛산 23.3만대/13.8만대/7.3만대(+10%/+18%/-4%). MS 15.9%(-0.2%p)/9.4%(+0.6%p)/5.0%(-0.8%p)
- 독일 아우디/BMW 1.6만대/3.7만대(-3%/+22%). MS 1.1%(-0.2%p)/2.5%(+0.2%p)

친환경차

- 4월 미국 친환경차 판매는 320,880대(+34% (YoY). 판매 비중 21.9%(+3.8%p (YoY))). 4월 누적 1,172,022대(+31% (YoY), 비중 21.8%)
- HEV 189,219대((+59%. 비중 12.9%). 4월 누적 660,631대(+50% (YoY), 비중 12.3%)
- PHEV 33,701대((+27%). 비중 2.3%). 4월 누적 110,809대(+6% (YoY), 비중 2.1%)
- BEV 97,941대((+5%). 비중 6.7%). 4월 누적 400,494대(+15% (YoY), 비중 7.4%)
- 전기차(PHEV+BEV) 판매는 131,642대(+10% (YoY)). 비중 9.0%(-0.1%p (YoY)). 4월 누적 511,303대(+13% (YoY), 비중 9.5%)
- 수소차 판매는 19대에 불과

주요 시사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영향은 4월에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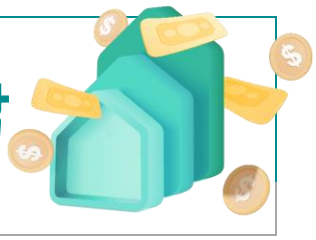
산업

- 4월 및 누적 미국 자동차 소매판매는 각각 11%/6% (YoY) 증가하며 양호한 증가세 기록. 재고일수도 감소
- 대부분의 업체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6월 이후 가격 인상을 고려. 구매자들의 선수요 효과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지속
- 6월 이후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 업체별로 가격 인상 및 투입 모델의 수정 등으로 전체 판매 및 점유율 측면에서 변동 예상
- 한편, 4월 친환경차 판매 호조 지속. 특히, HEV 판매가 50% 이상의 성장세를 2개월 연속 지속하며 친환경차 성장을 견인

주가

- 4월까지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시장을 상회하며 견조한 시장점유율 유지. 글로벌 주요 시장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기록 중
- 관세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 향후 관세 정책의 변화 및 대응 전략 등을 통해 관련 부담이 완화될 때 주가는 부분적으로 회복을 보일 것

금리 인하,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기대감



건설 Weekly | 2025.05.08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선임연구원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5%p 상회했다. 이번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한 주간 있었던 실적발표에서 건설 대형사는 무난, 건자재는 부진했다. 체코 원전 계약 임박 소식에 대우건설이 크게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2.8으로 2주 만에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하락(-0.02%)했으며, 전세가는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 매매가는 10주 연속 상승(+0.01%), 전세가도 11주 연속 상승(+0.01%)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상승(+0.09%), 전세가는 12주 연속 상승(+0.02%)했다. 지방광역시(-0.07%)와 기타지방(-0.05%)의 매매가는 48주 연속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2주 연속 보합, 기타지방은 하락했다(-0.01%). 전반적으로 상승이 둔화됐다. 하지만 상승지역은 여전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세부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크게 상승(+0.49%)했으며, 과천도 여전히 뜨겁다(+0.28%). 토허제 지역인 강남구(+0.19%), 송파구(+0.18%), 서초구(+0.18%), 용산구(+0.14%)의 매매가도 상승을 지속했다. 성동구(+0.16%), 마포구(+0.17%), 양천구(+0.15%), 영등포구(+0.08%), 강동구(+0.12%)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0.10%), 용인 수지구(+0.07%) 등도 상승 중이다. 수도권외 지방에서는 경북 일부지역(안동, 영주, 상주, 문경)의 매매가 상승이 특징이다.
- 지난 주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10건이다(서울중구, 경기부천/의왕/수원, 부산, 충남천안, 인천, 경남양산, 울산). 부산에서의 미달이 눈에 띄며, 대단지 분양이었던 인천에서도 일부 미달이 발생했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4건이다(충남서산, 부산, 경기수원).
- 대형사의 실적발표 이벤트는 종료됐다. 중소형사의 실적이 남아있지만, 지방의 부동산 업황을 고려했을 때, 매수해야할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건자재(시멘트, 가구)의 실적도 남아있지만, 올해 1분기 기성금액의 부진과 작년 4분기 거래량 부진을 고려했을 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번 달부터는 매크로와 대선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 추경은 약 1.35조원, 그 중 SOC에 8,122억원을 투입했다. 전반적으로 이자부담 완화, 공공발주 증가, 유동성 증가 가속을 전망하는 바, 이는 주택 업황 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5월 중에 나올 수 있는 대선 공약을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방식이 다를 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주 매수를 추천한다.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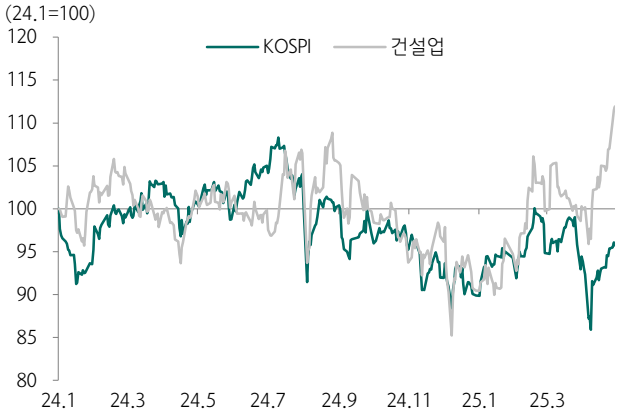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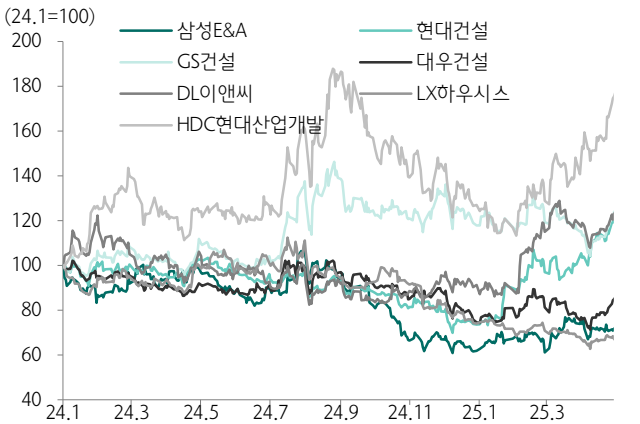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데이터독 (DDOG.US)

CP(5.6) 106.06 USD | TP(컨센서스) 143.21 USD 2025. 5. 7 | **해외 기업 분석**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긍정적인 시그널에 주목

사용량 추이 & 계약 체결 모멘텀 강화, 2025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

- 데이터독 1분기 주요 실적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우려와 달리 사용량 추이, 계약 체결, 계약 파이프라인 등 주요 항목이 모두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
- 주목할 부문은 크게 3가지.

  1) 대형 계약 체결과 신규 고객 확보에서 두드러진 강세 확인. 1천만 달러 이상의 초대형 계약 11건 체결(전년동기 1건), 신규 고객사 계약규모 YoY 70% 증가, 통상적인 1분기 계약 추이 대비 상당히 강한 모멘텀 확인

  2) 고객사 사용량 추이는 24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에 부합

  3) AI 관련 고객사의 매출 기여 확대 가속화. AI 관련 고객사의 ARR 비중이 8.5%로 전분기 6%, 전년동기 3.5% 대비 확대. 1분기 매출 성장 기여는 6ppt (전분기 5ppt, 전년동기 2ppt)로 증가
- 코드 생성 자동화를 비롯하여 AI 도입이 본격화되면 IT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독 성장 기회가 클 것.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을 투자 확대 구간으로 보고 있으며 세일즈와 마케팅 Capa 확대가 1분기 대형 계약 체결로 이어짐
- 2025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으나 1)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반기 전망치 기존 그대로 유지, 2) 통상적으로 사용량 추이 하반기에 개선되는 패턴 고려하면, 2025년 매출 가이던스 향후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성 높다고 판단
- 2025년 영업이익 가이던스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1분기에 보인 클라우드 호스팅 비용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
- 이익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일부 고객사 사용량 급증에 따른 클라우드 호스팅 비용 증가 추세를 미리 반영한 것이며, 현재의 투자 확대가 대형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이익지표 둔화는 우려할 사항 아닌 것으로 판단
- 사용량 기준으로 매출액 인식되는 사업자이기에 매크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종목. 향후 매크로 변화에 따른 변동성 고려할 사항이나 1)고객사의 사용량 조정과 관련하여 전분기대비 긍정적인 톤 변화, 2) 계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무적인 코멘트, 3)클라우드 전환과 AI 도입에 따른 수혜, 4)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

1분기 실적 상세 지표 & 가이던스

- 매출 7.6억 달러(+25% yoy, 컨센 7.4억), 조정 OP 1.66억 달러(+26%, 컨센 1.65억), 조정 EPS 0.46 (+4.5%, 컨센 0.43)
- 전체 고객 수 30,500(+9%), 10만 달러 이상 고객수 3,770(+13%). 10만 달러 이상 고객이 ARR 약 88% 차지
- 플랫폼 전략으로 Upsell 모멘텀 강화. 4개 이상 제품 사용 고객 51%(전년동기 47%), 6개 이상 28%(23%), 8개 13%(10%)
- RPO(잔여계약가치) 23.1억 달러(+33%), NRR(순매출유지율) 110%대 후반, GRR(총매출유지율)은 90%대 중후반 수준 유지
- LLM 성능, 비용, 보안 모니터링 도구인 'LLM Observability' 사용 고객수 지난 6개월 간 두 배 이상 증가
- AI 제품의 매출 성장 기여는 6%p로, qoq +1%p, yoy +4%p
- 클라우드 비용 상승으로 GPM은 전년 동기 대비 3%p 하락한 80.3%. OPM은 장기 성장 기회 추구를 위한 채용 계획이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5%p 감소한 21.9%
- 2분기 가이던스 매출 7.87억~7.91억 달러(컨센 7.81억), 조정 OP 1.48~1.52억 달러(1.58억), 조정 EPS 0.4~0.42 달러(0.41)
- 2025년 매출 가이던스 기존 31.75~31.95억 달러에서 32.15~32.35억 달러로 상향조정.
- 조정 OP는 기존 6.55~6.75억 달러에서 6.25~6.45억 달러 하향조정, 조정 EPS 기존 1.65~1.70 달러에서 1.67~1.71 달러로 상향조정

2025년 5월 8일 | Global Equity

에어버스(AIR.FP)

관세 불확실성과 경쟁사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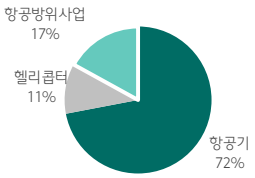
프랑스

TP(컨센서스)	182.72 EUR
CP(05.06)	156.64 EUR

Key Data

국가			FRANCE
상장거래소			EN Paris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우주항공 & 국방
홈페이지			www.airbus.com
시가총액(EUR)			124.1
시가총액(조원)			196.8
52주최고/최저()			175.9814/123.7925
주요주주 지분율(%)			
프랑스 공화국			10.83
독일연방공화국			10.81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7.7	11.2	1.0
상대	1.5	6.3	4.4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69,230	69,230	75,082	83,657
영업이익	4,336	4,954	7,029	8,285
순이익	3,789	4,232	5,105	6,271
EPS(EUR)	5.8	5.4	6.5	8.0
EPS(YOY, %)	5.4	(6.6)	20.9	21.8
ROE(%)	24.7	22.7	24.3	25.4
PER(배)	29.1	28.9	24.0	19.7
PBR(배)	6.2	6.2	5.4	4.6
배당률(%)	1.3	1.2	1.8	2.1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여객기 인도량 136대

에어버스의 2025년 1분기 여객기 인도량은 136대로 전년 1분기(142대) 대비 6대 감소했다. 1분기 보잉 인도량은 130대로 점차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나, 에어버스의 2025년 1분기 말 오더북은 8,726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1분기 매출액은 6% (YoY) 증가한 €135억, 영업이익(Adjusted EBIT)은 8% 증가한 €6.2억(영업이익률 4.6%)을 기록했다. 여객기 사업부 매출액은 4% (YoY) 증가했으나 항공기 인도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3% 감소한 €4.9억(영업이익률 5.2%)이었다. 헬리콥터 인도량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10% (YoY) 증가했다. 항공방위사업은 플랫폼/서비스 부문 호조로 매출액은 11% (YoY),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0.8억(영업이익률 2.9%)이었다.

2025년 가이던스 유지하나 관세 불확실성 존재

에어버스는 관세 영향을 배제한다면 2025년 가이던스인 여객기 인도량 820대, 영업이익 €70억을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버스의 8개 최종조립라인 중 2개(미국, 중국)가 관세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향후 관세 영향력이 전체 조립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생산 관련해서 A320 엔진 생산 차질로 상반기 인도량은 다소 부진하나, 하반기 정상화되어 가이던스에 부합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 인수를 통해 A350/A220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하고 있다.

항공기 제조사와 글로벌 정치역학

현재 항공기 제조사 주가에는 실적과 별개로 대외 정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한국/중동 등 지역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보잉 항공기 구매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양상으로 보잉 항공기를 인도 거부하고 있다. 경쟁사의 생산 차질 및 품질 문제와는 별개로, 당분간 보잉 향 수주가 집중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항공기 제조 병목이 이어지며 제조사가 우위에 있고, 에어버스는 유래없이 높은 수준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경쟁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버스의 주가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4/28	184,400	190,800	3.47%	•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KT (030200.KS)	4/28	50,200	52,000	3.59%	• 조직 개편 효과, 아파트 분양 이익 발생으로 25년 1분기 분기 최대 실적 기대 • 25년 주주이익환원 규모 9,500억원에 달해 주주 환원 수익률 7.9% 기록
한화솔루션 (009830.KS)	4/28	29,800	30,450	2.18%	• 주택용 에너지 사업 영업이익 1,292억원(매출액 약 6천억원, OPM +22%)으로 대폭 개선 • 내부 수요 성장 감안 시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 감소와 가격 반등 필연적
효성중공업 (298040.KS)	4/28	459,500	516,000	12.30%	• 1Q25 Preview 매출액 1.1조원(YoY +16.0%), 영업이익 968억원(YoY +72.3%) 전망 • 4월 초 발표된 반덤핑 관세 0%로 확정되어 북미 관세 리스크 제한 전망
이마트 (139480.KS)	4/28	91,300	90,300	-1.10%	• 4Q24 Review 매출액 7.2조원(YoY -1.0%), 영업손실 771억원(YoY 적자전환) 기록 • 하반기부터 G마켓 관련 손실과 PPA 상각비 제거 될 전망
현대코퍼레이션 (011760.KS)	4/28	22,350	22,750	1.79%	• 글로벌 전력망 투자 증가 수혜가 안정적 이익 시현으로 이어지며 실적 변동성 완화 기여 • 양호한 현금흐름 기반 신사업 투자 및 중장기 주주환원 확대 기대
브이티 (018290.KQ)	4/28	37,700	37,800	0.27%	• 4Q24 Review 매출액 1,124억원(YoY +27.0%), 영업이익 291억원(YoY +54.0%) 기록 • 2분기부터 지역 접점 확대와 동시에 미주 중심의 마케팅 투자 본격화 전망
휴온스글로벌 (084110.KQ)	4/28	49,050	49,550	1.02%	• AACR 2025서 히알루로니다제인 HyDIFFUZE의 비임상 시험결과 발표 예정 • 피하투여제형 시장 진입 본격적으로 홍보하며 시장 주목 기대
CJ프레시웨이 (051500.KQ)	4/28	23,500	24,450	4.04%	•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아파트/군 급식 등 신규 수주 기대 • 작년 의료파업 기인한 기저효과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디오 (039840.KQ)	4/28	18,760	19,880	5.97%	• 중저가 임플란트 신제품의 25년 2분기 말 국내 출시 및 2026년 중국 출시 예정 • 26년 중국 VBP 2차 시행과 함께 중저가 세그먼트의 성장세 지속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08%	-0.63%p	+8.78%	+0.9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화솔루션 (009830.KS)	4/28	29,800	30,450	2.18%	• 주택용 에너지 사업 영업이익 1,292억원(매출액 약 6천억원, OPM +22%)으로 대폭 개선 • 내부 수요 성장 감안 시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 감소와 가격 반등 필연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4	180,800	190,800	5.53%	•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KT&G (033780.KS)	4/14	105,600	114,800	8.71%	• 25년 자사주 약 1.3조원 매입 소각과 약 2.4조원 규모 배당 이행 전망 • 국내 NGP 매출액 YoY 증가 흐름 및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망
한국콜마 (161890.KS)	4/7	68,200	75,500	10.70%	• 1Q25 Preview 매출액 6,357억원(YoY +11.0%), 영업이익 525억원(YoY +62.0%) 전망 • K-뷰티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상위 업체로의 수주 집중으로 25년 호실적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4/1	627,000	890,000	41.95%	• 4Q24 Review 매출액 4.8조원(YoY +56.0%), 영업이익 8,925억원(YoY +222.1%) 기록 • 하반기 K9 자주포 및 천무의 인도 지속 고려, 高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크래프톤 (259960.KS)	4/1	334,500	385,500	15.25%	• 1Q25 Preview 매출액 8,005억원(YoY +20.2%), 영업이익 4,052억원(YoY +30.5%) 전망 • 라이프 시뮬레이션 신작 [인조이] 출시로 연간 150만장 판매 전망
KT (030200.KS)	4/1	49,600	52,000	4.84%	• 조직 개편 효과, 아파트 분양 이익 발생으로 25년 1분기 분기 최대 실적 기대 • 25년 주주이익환원 규모 9,500억원에 달해 주주 환원 수익률 7.9% 기록
하이브 (352820.KS)	4/1	235,500	264,500	12.31%	• 4Q24 Review 매출액 7,253억원(YoY +19.0%), 영업이익 653억원(YoY -27.0%) 기록 • BTS의 컴백 하이브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트래픽 확대 가져 다 줄 것
HD현대미포 (010620.KS)	4/1	105,400	172,100	63.28%	• 탄소포집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LCO2 운반선 수요 증가에 우호적인 발주 환경 지속 • RO-Pax선 취소로 과거 저마진 컨테이너선 물량 해소 시점 단축
이마트 (139480.KS)	4/1	81,100	90,300	11.34%	• 4Q24 Review 매출액 7.2조원(YoY -1.0%), 영업손실 771억원(YoY 적자전환) 기록 • 하반기부터 G마켓 관련 손실과 PPA 상각비 제거 될 전망
유니드 (014830.KS)	4/1	71,100	87,000	22.36%	•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감안 시,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 상승은 판가 상승의 트리거 가능 • 25년 곡물 강세 지속으로 인한 비료 수요 증가로 염화칼륨 가격 반등 가능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55%	+12.43%p	+20.73%	+12.9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4	**5.5**	**5.6**	**5.7**	**5.8**	**5.9**	**5.10**
	▪ 유로존 5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E --, 4월 -19.5P) ▪ 미국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F (E 51.4P, 3월 54.4P) ▪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49.6P, 3월 50.8P)	▪ 중국 4월 Caixin 서비스업 PMI (E --, 3월 51.9P) ▪ 독일 4월 HCOB 서비스업 PMI F (E 48.8P, 3월 50.9P) ▪ 유로존 4월 HCOB 서비스업 PMI F (E 49.7P, 3월 51.0P) ▪ 영국 4월 S&P Global/CIPS 서비스업 PMI F (E 48.9P, 3월 52.5P) ▪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 (E --, 2월 3.0%)	▪ 일본 4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F (E 52.2P, 3월 50.0P) ▪ 유로존 3월 소매판매 (E --, 2월 2.3%)	▪ 미국 5월 기준금리 (E 4.50%, 3월 4.50%) ▪ 영국 4월 RICS 주택가격 수지 (E --, 3월 2.0%) ▪ 독일 3월 수출/입 (E --/--, 2월 1.9%/0.8%) ▪ 영국 5월 기준금리 (E 4.25%, 3월 4.50%)	▪ 중국 4월 수출/입 (E --/--, 3월 12.4%/-4.3%) ▪ 일본 3월 선행지수/동행지수 P (E --/--, 2월 107.9P/116.9P)	▪ 중국 4월 소비자물가 (E --, 3월 -0.1%) ▪ 중국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2.5%)
				▪ 미국 5월 FOMC ▪ BOE 5월 통화정책회의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독일 5월 ZEW 경제성장 예상 (E --, 4월 -14.0P) ▪ 유로존 5월 ZEW 경제성장예상 (E --, 4월 -18.5P) ▪ 미국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2.4%/2.8%)	▪ 한국 4월 실업률 (E --, 3월 2.9%) ▪ 일본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4.2%) ▪ 독일 4월 소비자물가 F (E 2.1%, 3월 2.2%)	▪ 영국 1분기 GDP P (E --, 4분기 1.5%) ▪ 유로존 1분기 GDP A (E --, 4분기 1.2%) ▪ 유로존 3월 산업생산 (E --, 2월 1.2%) ▪ 미국 4월 소매판매 (E --, 3월 1.5%) ▪ 미국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0.4%) ▪ 미국 4월 광공업생산 (E --, 3월 -0.3%) ▪ 미국 4월 설비가동률 (E --, 3월 77.8%)	▪ 일본 1분기 GDP P (E --, 4분기 2.2%) ▪ 미국 4월 주택착공건수 (E --, 3월 -11.4%) ▪ 미국 4월 건축허가 (E 0.0%, 3월 0.5%) ▪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P (E --, 4월 52.2P)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